

전남~제주 해저터널 대신 공약 반영 총력

이재명 “비행기보다 효율적”
전남도, 당위성 지속적 건의
지역민 “민주당 적극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제주 KTX 고속철도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07년 첫 제안 후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대신 공약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사례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제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와 거의 시간이 같아졌다. 이미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다 폐지하는 추세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내항공 수요는 제주도 아니겠나.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지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을 낼 경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대기하고 내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오히려 더 빠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섬은 섬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냐는 내부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저터널은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목포, 해남(쌍골), 보길도, 추자도, 화도, 제주도를 연결하는 179.1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6조 8,0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사업 완료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개설 1단계 사업은 68.8km에 2조 8,290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07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육지 구간을 제외한 해저 구간만 73km에 달하는 데다 공사 기간 16년, 투입 예산도 16조 8,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토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못 미치는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제주도가 ‘2공항 신설’에 주력키로 하면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한반도 서부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과 관광벨트 형성,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이동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관광객·물류수송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는 올해 치러질 대선 공약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정부를 꾸준히 설득 중이다.

허재철 전남도 철도팀장은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6·1 지방선거 후 제주도와 고속철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 논의와 쟁점 사항을 재협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속철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국비 반영 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사례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국토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28조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치권이 앞장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100년 미래를 설계한다고 볼 때 낙후지역인 전남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관광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분주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설날을 앞두고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훈 기자

사업비 늘어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 후 물가 상승,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 현장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예산이 기존 추정액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단계 사업 예산은 당초 2조 2,114억 원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증액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물가·인건 상승으로 2,357억 원, 법령 개정으로 1,70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고 분석했다.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될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한 구간 변경 등 우려도 나왔지만, 재조사를 면하면서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액 규모와 적정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하기로 해 예산 확보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의 주된 목표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테니 합의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6개월 안에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 중 2단계 사업에 착공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해 현재 공정을 31%를 보인다.

/오선우 기자

이용섭 “부실공사와 전쟁 선포”...기동팀 가동

광주시가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용섭 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들의 안전’이다”며 “무엇보다 건축·건설 현장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해를 ‘건설 안전 원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

전 위험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나 인공지능 사업 추진 때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정책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등 업계에 넓게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 행태를 바로잡



겠다”며 “광주시 공공감리단을 중심으로 건축·건설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공감리단 내에 기동팀을 운영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부실공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바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힘내라 전라남도, 으랏차차 우리 농수축산물”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검색 남도장터

남도장터에서 “남도 맛”을 잡았다



“내 손안의 장터”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070.7816.8510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주문 방법

다양한 소식도 만나보고, 채팅상담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www.jnmall.kr)입니다.